



5.31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1. 정견발표



사회자 양주승

- 본지 자문위원장
- 전 포천로타리클럽 회장
- 현 포천시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 현 포천미협 부회장

본지주최 5.31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호1번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와 기호2번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기호6번 무소속 홍찬기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5.31지방선거에서 포천시장으로 입후보한 출마자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포천시 발전을 위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토론회는 제1부 정견발표, 제2부 주제토론, 제3부 후보자간 상호토론, 제4부 방청객 질문, 제5부 후보자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정견발표는 '왜 내가 포천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및 '포천시장이 되면 최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위주로 자유롭게 발표했으며 토론주제는 지역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과 교통난 해소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정해 실시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 질문을 금하고 본인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방청객 질문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배포한 질문지에 내용을 작성해 사회자가 대신해 질문하는 형식으로 실시했다.

후보자 자유발언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위주로 발언하도록 했다.

(편집자주)



기호1번 열린우리당

서 장 원 후보

서장원 후보

지하철 7호선 연장, 43번 국도우회도로 유치
첨단산업단지 관광단지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포천을 사랑하고 포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사회자**: 먼저 각 후보님들의 정견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장원 후보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후보 기호 1번 서장원입니다. 우선 포천시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의 장을 마련해주신 포천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낙후된 포천 발전을 위해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는 어느 시보다 많은 구축과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포천시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할 능동적 주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할 포천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꾼은 포천시를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통합할 최고 경영자적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포천군의회 제2대, 3대 의원과 의장을 지내며 의정능력을 쌓아왔

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4년간 경기북부권의 인근 도시에 비해 교통, 경제, 교육, 문화, 농업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발전이 미미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의 당면 과제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7호선의 연장, 43번 국도 우회도로 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유치하는 등 굵직굵직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은 포천을 사랑하고 포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낙후된 포천경제를 살릴 경제시장 후보 서장원, 어떻게 해야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을 뽑으신다면 누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잘 하는 사람인지 주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는지 주민은 포천시장 후보 서장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합니다. 경제시장 후보 서장원, 그동안.....

▶**사회자**: 예 시간을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윤국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최호열 포천신문사 회장을 비롯해서 양주승 사회자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는 정치적인 선배로서 가장



기호2번 한나라당

박 윤 국 후보

홍찬기 후보

'포천시 행정은 전시행정 표심모이기 행정' 지적
통합과 화해로 주민의 리더쉽 발휘 살맛나는 포천건설
"정치생활 피맺힌 20여년 모든 것 고향 위해 바치겠다"

훌륭하신 홍찬기 후보님을 비롯해서 서장원 후보님 모두가 포천을 아끼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포천이라는 도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소외됐던 그런 지역인데 경기동북부 지역에서 말 그대로 방금 전에 서장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숨가쁘게 지난 4년을 지나왔습니다.

관용차를 타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46만 킬로미터를 탔는데 46만 킬로라는 건 무려 지구 11바퀴 돌아서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저희가 혼자서 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저희는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라는 포천시는 지난 5월에 마지막으로 전국에 포천시청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영해서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제 연계성 있는 정책적인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5월 31일은 매우 포천으로 바서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바로 포천이란 도시를 군사시설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떠나서 문화 예술 교육 산업의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사회복지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의 천국, 또 어른들의 안식



기호6번 무소속

홍 찬 기 후보

박윤국 후보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포천시 최우수기관 선정
포천시를 아이들의 천국, 또 어른들의 안식처로
"문화 예술 교육 산업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CEO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영농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라는 금년도에 172억이라는 국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필요보다는 더 높게 더 멀리 생각하고 20년, 30년 뒤의 포천을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여러분의 힘으로 고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찬기 후보님 차례입니다.

▶**무소속 홍찬기 후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포천신문 임직원 여러분과 양주승 사회자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정당인으로서 정당의 공천에 불복하고 정당을 벗어나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한데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이번 포천시장 공천 과정은 금품수수설이 난무한 가운데 검찰조사까지 의뢰되는 수모를 포천시민 전체가 받는 입장이 됐고, 또한 한편 지난 4년간 포천시의 행정은 허무한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로서 가득 채워진 전시행정 표심모이기 행정에 불투명한 나머지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경제는 점차 피폐해져서 정령 포천의 위기 지역사회 리더쉽의 위기 그것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제 포천시민은 어느 정당에도 희망을 걸 수 없게 됐습니다. 포천시의 행정에도 희망을 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가 경영을 혼란과 갈등으로 물고간 열린우리당, 이번 포천의 한나라당은 공천비리로 포천시민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앗아간 현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포천의 살림을, 포천의 미래를 맡을 수 있겠는가.

이제 포천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각 정당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빠져진 반성으로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위해서 고민하는 포천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 저에게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생활 피맺힌 20여년 여한없이 모든 것을 고향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시민의 대화함을 이루어서 구겨진 포천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회복시키겠습니다. 통합과 화해로서 주민의 리더쉽을 발휘해서 살 맛나는 포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토론시간에 말씀드리고 하고 간단히 인사에 끝낼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지 주최 5.31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세후보가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은 좌로부터 열린우리당 서장원 후보, 한나라당 박윤국 후보, 무소속 홍찬기 후보)